

## 제38차 학술대회 참관기

### “SNUCMAA 학술대회가 갖는 고유한 매력을 새삼 확인한 배움의 시간”

강민중 (91년)

2016년에 워싱턴 근교 (버지니아 주)에서 진행되었던 33차 SNUCMAA 학술대회에 발표자로 참가한 이래, 제법 여러 해 동안 모교 동창회 학술대회에 참여해 왔다. 해를 거듭 하여 참여할수록 우리 모교 동창회 학술대회만이 줄 수 있는 특별한 배움의 기쁨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점점 더 “SNUCMAA 학술대회”에 이끌리게 되는 것 같다.

우리 동창회 학술 대회만이 갖는 엄청난 매력은 바로, 임상 및 기초 의학, 그리고 넓게는 현대 생명 과학의 다방면에서 활약하는 동문 선, 후배님들이 자신의 분야에서 갈고 닦은 지식의 정수를 아낌없이 나누고 서로 배우는 자리라는 점이다. 학창 시절 및 수련의 시절을 지낸 후 전문의 또는 한 분야의 전문가로서 일하다 보면, 방대한 의학/생명과학 분야에서 엄청나게 변화, 발전하는 지식의 축적을 놓치기가 쉽고, 그래서 자칫 우물 안 개구리와 같은 우를 범할 수 있다. 자신이 속한 전문 분야의 학술대회에서만 활동하다 보면 심지어는, 자신이 우물 안 개구리가 되어가고 있는 것도 깨닫지 못하게 된다. 해마다 “SNUCMAA 학술대회”를 통해, 우물 안에 갇혀 있었던 좁은 시야를 벗어나서, 의과학의 다양한 분야를 두루 새롭게 배우는 기회를 올해도 어김없이 만끽하였다. 조금 거창한 단어를 빌려 쓰자면, 의과학/생명과학의 최신 지견을 통섭하는 기회를 가졌다고 할까?

배움의 시간 만큼이나 소중한 또 다른 매력은 미주에서 새롭게 도전하는 젊은 후배님들의 생기발랄함을 만나고 그들과 교류하는 시간이다. 올해 처음으로 새롭게 “SNUCMAA 학술대회”의 무대에 등장한 젊은 동문들은 김혜리 (2008), 오재원 (2019), 이지영 (2019) 동문 등이다. 와우~ 2019년 졸업이라는 숫자가 너무 낮설다. 이들 젊은 동문들이 각자 자신들이 배우고 연구하고 있는 내용들을 발표할 때마다 여러 선배님들이 경청을 했고, 발표 후에는 어김없이 이들 젊은 동문들을 격려하는 열띤 질문들이 이어졌다.

또한, 모교에서 먼 길을 와 주신 강대희, 김홍빈, 정호경 교수님들은, “Healthy Aging:

Living Longer and Living Well”이라는 올해의 학술대회 주제와 연관지어서 자신들의 고유한 분야의 최신 지견을 정리해서 제한된 시간 내에 노련하게 전달하는 원숙한 강의를 진행하였다. 이 밖에도 김태곤, 송현범, 곽민지, 박혜성, 박종철, 이선규, 임경빈, 김종오, 박계영, 김중호 동문 모두의 강의로부터 너무나 많은 것들을 새로 배우게 된 소중한 시간이었다. 이들 모두로부터 배운 내용들을 다 소개하자면 글이 너무 길어지니까 생략하기로 하자.

하지만, 이 기사를 통해 꼭 전하고 싶은 소식이 하나 더 있다. 그것은 바로, 임경빈 (99) 그린프로젝트 위원장이 야심차게 준비해서 성공적으로 진행된 모교 재학생들과의 줌 미팅 세션에 관한 내용이다. “SNU To the NU To The Future, To The World (서울의대 미래로 세계로)”라는 주제로, 임경빈 (99, 그린프로젝트 Chair) 동문 및 안소희 (2024졸업 예정, Mexim 회장) 학생이 공동 좌장으로 이 프로그램은 진행되었고, 패널 참여자로는 미주 학술대회 현장에서는 김태곤 (01), 송현범 (08), 김혜리 (08), 오재원 (19), 이지영 (19) 동문이, 그리고 우리 나라 서울에서는 임하은 (2023) 및 신정현 (2024 졸업 예정) 학생이 참여하였다. 이에 더하여, 서울에서 접속한 20여명이 넘는 모교 재학생 및 졸업생이 참석하였고, 미주 학술대회 현장에서 여러 동문 선배님들이 줌 미팅을 통해 서로 교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으로 안소희 재학생 대표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받은 감사의 글 내용을 일부 소개하면서 올해 학술대회 참관 기사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 대학에 입학한 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은 새내기부터 졸업 후 어떤 길을 가야 할지 눈앞에 펼쳐진 여러 갈림길 앞에 서 있는 본과 4학년 학생들까지 모두들 막연한 미래와 다양한 직업과 인생의 경로에 대한 고민을 선배님들과 나누며, 격려를 받고 마음을 다지는 유익하고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택하는 일반적인 길에서 벗어나 미국에서 의사/과학자로 활동하는 데에 유리천장과 같은 현실적인 제약이 있을까 하는 두려움도 크지만, 선배님들의 경험과 조언을 통해 마음가짐과 자신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며, 아예 불가능한 것은 없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비대면 줌 미팅을 통해 먼 거리에서도 후배들을 위해 소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 선배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